
[제4주제]

남북한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전쟁 비교

이 신 철
(성균관대)

[연구발표 제4주제]

남북·재일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전쟁 인식 비교

이신철(성균관대)

< 목 차 >

- I. 머리말
- II. 남북 역사교육체계 비교
- III. 남북의 동학농민전쟁 서술
- IV. 남북·재일 교과서의 동학농민전쟁 서술
- V. 맺음말

I. 머리말

2018년 전격적인 남북 화해 국면의 전개와 신일철주금의 일제시기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은 우리가 겪었던 식민지 피해문제와 함께 지난 100년의 한국사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의 무거운 역사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는 남북의 대일과거사 청산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론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불일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조선, 북측)의 역사인식은 계급중심적이면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해 정립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한국, 남측)의 역사인식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사의 전개라는 통사적 체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라는 근대화의 과제 달성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개별 역사사건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그 같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또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의 남북, 그리고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인식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구할 수 있는 북측의 교과서가 제한이 있는 만큼 현재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던 남측의 국정 교과서, 그리고 재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

II. 남북 역사교육체계 비교

남측의 초중등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총 1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의 경우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총 11년이다. 북측의 경우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총 12년을 국가로부터 의무교육을 받는다.

북측은 1972년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의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을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 인민학교를

1) 재일 교과서의 경우 중급2학년의 교과서만을 비교한다.

소학교로 개칭하고 5년제로 확대하고, 고등중학교를 고급중학교로 개칭했다. 2014년 다시 학제를 개편하여 현재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제의 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교육은 남측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부터 8년간, 북측의 경우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과정을 통해 총 6년간 필수 과목으로 학습하게 된다. 다만, 남측의 경우 현대사 시기의 서술을 포함하고 있고²⁾, 북측의 경우 현대사 교육은 별개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당사(인민사)와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따로 가르치고 있다.

남측의 『한국사』와 북측의 『조선력사』의 역사교육과정을 표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년	교과서 명칭과 범위		학년	교과서 명칭과 범위	
초등 5학년	사회 5-2	~임란	(소학교 5학년)		
초등 6학년	사회 6-1	임란 이후	초급중학교 1년	조선력사 1	~발해
중 1학년	역사1	~임란(+세계사)	초급중학교 2년	조선력사 2	~6.10만세운동
중 2학년			초급중학교 3년	조선력사 3	원시~발해
중 3학년	역사 2	임란 이후(+세계사)	초급중학교 4년	조선력사 4	고려
고등 1학년	한국사	전체 통사	초급중학교 5년	조선력사 5	조선
고등 2학년			초급중학교 6년	조선력사 6	1905~1929
고등 3학년					

2) 남측에서는 7차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 『한국근현대사』과목이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으로 설치되어 교육된 바 있으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격렬한 역사논쟁 끝에 폐지되고, 현대사 부분이 한국사 과목에 통합되었다.

Ⅲ. 남북의 동학농민전쟁 서술

남측의 교육과정에서 동학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번씩 세 번을 배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봉준을 지도자로 한 봉기가 있었음을 간략히 서술하고, 상상화를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은 서술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초급중학교 2학년과 5학년 때 각각 한 번씩 동학에 관해 배운다. 우리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2학년 때는 전봉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운다.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에 이르러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정세, 그리고 영향 등을 자세히 배우게 된다.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 북측 역사서술의 일반적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북측의 역사서술의 변화

조선의 역사서술은 크게 1980년대 주체사관의 확립 전후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역사서술은 다시 1960년대를 전후하여 그 성격이 달라진다. 초창기 역사서술은 국내계, 소련계, 연안계 학자들에 의해 기초적 서술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³⁾ 이 책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로도 사용될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는 이 같은 역사인식을 반영한 『조선력사』를 교재로 상요하였다.

1960년대 중후반 ‘종파투쟁’을 거치며 역사학 서술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1960년대 이후 역사학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계열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1960년대 발행된 『조선력사』는 동학농민운동을 갑신정변, 갑오개혁과

3)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민족해방투쟁사』, 김일성종합대학, 1949, 서문 참조.

함께 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⁴⁾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총 33권으로 발행된 『조선전사』⁵⁾는 조선의 역사 서술 전반을 변화시켰다. 주체사관에 입각한 역사 서술체계와 내용이 정비되었고, 『조선력사』도 그에 따라 서술이 대폭 수정되었다. 역사서술의 첫머리는 김일성의 교시로 채워졌다. 서술 기법에서도 ‘조병갑놈’, ‘그놈’ ‘이놈’ 등의 자극적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의 역사서술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뿐 아니라 읽는 이의 감정에까지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⁶⁾

2014년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조선력사』는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조선력사』 속에 세계사 서술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2007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병행 서술하는 『역사』가 설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사』 과목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같은 서술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 『역사』과목까지 그 같은 체제가 확장된 것과 비교된다.

4)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조선력사』, 1964, 67~80쪽.

5) 『조선전사』의 3.1운동 서술에 대해서는 홍종욱, 「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제99호, 2018, 182~188쪽이 자세하다.

6) 조선의 역사서술 경향과 조선전사 이후의 서술방법 변화에 대해서는 정진아, 「3.1운동에 대한 분단된 집합기억을 통일을 위한 집합기억으로」, 건국대 통일인문학 제35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코리언의 상생과 통일한반도의 문화디자인” 발표문(2018.10.19.) 참조.

3. 남북·재일 교과서의 동학농민전쟁 서술

	남측 교과서			북측 교과서	재일 교과서
	『사회』 6-1(2015)	중학교 『국사』, 2002	고등학교 『국사』, 2002	리태영, 『조선력사<고등학교 제2학년용> 2판』, 교육도서출판사(평양), 2001	『조선력사』 중급2, 학우서방, 2004 초판, 2017년 재판.
주제					
용어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생활난과 지방관리의 횡포 / “물기는 계속 오르고 지방 관리의 횡포는 계속 되어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동학은	동학의 보급, 교조신원운동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정부 개화정책, 개화운동, 유생층의 위정척사 운동 효과적 대응 실패” / 경제파탄(“근대 문물의 수용과 배상금 지불 등으	“씩어 빠진 봉건통치를 바로 잡아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을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 내데 대한 투쟁목표를 내세웠습	간악한 수탈자 조병갑(불효죄, 불목죄, 대동미, 제 애비의 비각, 만석보 추가 뚝) / 전창혁 학살 / 인핵사 리용태
배경					고부군수 조병갑은 악착한 방법으로 인민들에게서 막대한 재물을 빼앗아내었다. 특히 萬石漿밀에 뚝을 더 쌓고 농민들에게서 비싼

	이러한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조선의 대표적 국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에서는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하였다.“		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져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동학의 농민불만 수용	니다.”			물세를 받아냈다. 격분한 농민들은 폭동에 일떠섰다.
봉 기 의 목표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탐관오리 척결, 백성 구제	보국안민과 제 폭구민	상동		“《보국안민》과 폐정개혁을 위해 농민들이 들고 일어 날것을 호소하는 창의문”	

지도자	전봉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전봉준	정부의 개혁이 부진하고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노골화되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일본을 몰아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일본을 몰아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노골화되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정부의 개혁이 부진하고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	“봉건정부가 폐정개혁을 하지 않고 《토벌》책동으로 농민군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봉건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한편 청일전쟁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더욱 엄중히 짓밟았기때문이었다.”	전봉준
-----	-----	---------------	-----	---	--	---------------------------------	---------------------------------	--	---	---	-----

고종의 청군 요 청 언급 없음 / 대청견제	고종의 청군 요 청 언급 없음 / 대청견제	“청은 동학 농민 군을 막는다는 이유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	“다급해진 정부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도 우리 나라에 군대를 보냈다.”	“조선 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이 농민 전쟁을 구실로 많은 군대를 끌고 들어와 농민군진압에 미처 날뛰었기때문이였습니다.” / “일제침략자들은 농민군진압을 계기로 봉건 통치배들을 손아귀에 튼튼히 틀어 쥐고 조선을 완전히 먹으려고 우리나라에 1만여 명의 군대를 끌고 기여 들었습니다.”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군과 함께 청나라군대와 1만명의 일본침략군까지 끼여 들어 횡포한 무력간섭을 하였다.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군과 함께 청나라군대와 1만명의 일본침략군까지 끼여 들어 횡포한 무력간섭을 하였다.	바빠맞은 민씨일파는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는 한편 농민군에 <<화의>>를 제기하였다. 5월초 청나라군대가 충청도 아산만에 일본침략군은 인천에 기여들었다.
-------------------------	-------------------------	---	---	---	---	--	--	---

전투	전라도 봉기, (우금치)	고부(백산), 황토현, 장성, 전주, 공주 우금치, 태인	고부 봉기, 전주, 우금치	공주(우금치)	고부, 장성, 목천, 공주/리인, 봉황산, 효포, 응치, 우금치	고부, 백산, 황토현, 전주, 공주
패전 요인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다.”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어 물러남.		“결국 근 20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던 공주에서의 격전은 농민군의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공주대격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막대한 희생을 낸 농민군은 공주에서 철수하였다. 농민군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오를 해산하였다.” ① (표 아래 참조)	
패정개혁 안과 집강소	없음.	패정개혁안 12개조 “그 동안의 국내 정치의 모순	패정 개혁 12개조, 집강소(구체 내용 없음)		“농민군은 화의조건으로 폐정을 개혁할데 대한 27가지 요구를 봉건정부에 접수시켰다.	전주회의, 집강소

1차 봉기 해산	두 나라 군대 의 철수를 주장	을 바로잡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농민 들의 생각을 반 영한 것이었다. 농민군은 전라 도 지방의 각 고을에 집강소 라는 자치기구 를 설치하고, 그 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 발 생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려고 하 였다.”			집강소는 각 고을에서 노비문서와 빚문서를 없 애고 말과 무기들을 모 아 농민들의 무장을 강 화하였으며 집강소를 지 키는 《호위군》을 조직하 였다.”		“봉건정부의 속심을 모 르지 않았지만 외래침략
-------------	---------------------	--	--	--	--	--	------------------------------

	하며 스스로 해 산	위해 서둘러 정 부와 화약을 맺 었다. 그리고 전주에서 철수 한 후 일단 해 산			으로 나라에 조성된 위 기를 가시며 농민군의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 《화의》에 동의하였 다.”		
2차 봉기 참여자수	10만여 명			몇 십만	23만	수만명	
명 향 과 의의	“농민군의 뜻은 의병 항쟁으로 이어졌다.”	“항일 의병 전 쟁에 참전하여 항일 투쟁의 전 통을 이어 갔 다.”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부 분적으로 반영 되었으며, 농민 군의 잔여 세력 은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반일 무장 투쟁을 활 성화하였다.”	실패한 뒤 농민 군들에 대한 야 수적학살이 감 행 / “비록 실패하였으나 농 민군의 용감한 투쟁은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에 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올바른 지도의 필요성 / 반제반봉건투쟁의 력사 적 의의 / 일본침략자들 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 대한 타격 / 인민들의 투쟁에는 커다란 고무 영향 / 부루췌야개혁 실 시 / 아시아반제민족해 방투쟁의 새벽종 ② (표 아래 참조)	농민전쟁은 일본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 라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 동하였다.	

				인민들을 더 큰 투쟁으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진	이송되는 전봉준	전봉준의 옛집 (정읍)/동학 농민 운동 기념탑 (정읍)				사발통문 / 체포된 전봉준	
그림	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 상황화	고부 농민군의 백산 봉기(민족 기록화)		인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농민군		1894년 농민전쟁도	
기타		도움글. 새야새야/조병갑 비리/우금치 전투			③ (표 아래 참조)		

① 갑오농민전쟁의 실패 요인(『조선력사』 고등중학교5 2판, 2001년)

“첫째로, 농민군이 올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하데 있었다.

지방관청과 서울에 쳐들어 가서 몇몇 악질량반통치배들이나 처엿앨것을 목표로 할것이 아니라 봉건통치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민들이 주인된 새세상을 세울것을 목표로 해야 하였다.

투쟁방도에서는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조직적인 폭력투쟁으로 봉건제도자체를 뒤엎은것으로 되여야 하였다.

그러나 100여년전 전봉준과 같은 농민군지휘자들은 아직 그런 높은 사상의식을 가질수 없었으니 그것은 그것을 가르쳐 줄 로동계급의 당이 없었기때문이다.

둘째로, 농민군의 전략적으로 잘못하데 있다.

레하면 전주를 점령했을 때 곧장 그 기세로 서울로 쳐들어 갔어야 할것이였다. 또 휴전기간에도 투쟁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무모하게 싸운것도 그렇다.

셋째로,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무력간섭과 봉건통치배들의 반역행위에 있었다.”

② 교훈(『조선력사』 고등중학교5 2판, 2001년)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일단 투쟁을 시작했으면 계속 진격하여 외래침략세력과 낡은 사회제도자체를 짓부셔 버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갑오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 데 있다.

농민전쟁은 일본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투쟁에는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힘 있게 추동함으로써 마침내 이해에 부르쥬아개혁이 실시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 의의는 갑오농민전쟁이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는 데 있다.”

③ 북측 교과서의 기타 서술(『조선력사』 고등중학교5 2판, 2001년)

“간악한 수탈자 조병갑: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리조 순조왕의 안해인 <<조대비>>의 친척으로서 그 권세를 등대고 별의별 악착한짓을 다해 가며 고부군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이놈은 농민들에게 묵은 땅을 개간한데서는 전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가을에 가서 엄청난 전세를 빼앗아 댔다.”

“전봉준과 아버지, 아들 3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애국투쟁에 생을 바쳤다.

아버지 전창혁은 1893년 두차례나 농민대표들을 이끌고 고부관청에 들어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이대며 투쟁을 벌리다가 조병갑놈에게서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아버지인 전봉준의 애국의 넋을 이은 아들 전해산은 갑오농민전쟁후 반일의병장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다. 그가 쓴 시 《옥중에서 읊노라》는 열렬한 애국정신과 일제에 대한 불 타는 적개심이 맥박쳐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을 두었기에 전봉준은 농민전쟁의 지휘자답게 원수들에게 체포된후 사형 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지조를 곳곳이 지켰다.”

□ 북측 교과서의 주요 특징

① 리태영,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2판』, 교육도서출판사(평양), 2001

* 반봉건 계급투쟁에 서술의 역점+반일 항전

* 교시: “1894년에는 전라도농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농민전쟁을 벌렸습니다.”

② 『조선력사』 고등중학교5 2판, 2001년.

* 아시아 개념 추가

* 혈통주의 강조(조병갑-순조왕의 안해인 '조대비'의 친척/전창혁-전봉준-전해산)

* 걱정적 단어와 미확인 사실의 기술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사변으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세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 것이었다.”

③ 기타: 부르주아 혁명론의 자장 속 설명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서술로 변화, 사진과 그림 활용 부족, 감정적 서술.

V. 맺음말

남과 북의 교과서 모두 그 명칭은 달라도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매우 높은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 서술에서는 최근에 이를수록 그 차이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실에 대한 기술이 차이가 나고 있고, 남측의 교과서가 동학에 대한 역할에 주목하면서도 농민전쟁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교과서에 새롭게 반영하면서 북측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늘어가고 있다. 반면 북측의 교과서는 전봉준의 아들과 같이 남측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서로의 차이가 적지 않게 크지고 있다.

역사관의 측면에서도 남측의 교과서에서는 반침략반봉건 투쟁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학 농민운동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북측의 교과서는 반봉건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주체사상적 해석과 반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와 노동자계급의 결여 등을 강조하는가 하면, 혈통주의적 서술을 강화하고 있다.

반제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전쟁을 아시아 3대 농민항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측의 교과서에서 세계사 속 조선사의 정

립을 강조하고 있고, 남측의 교과서 또한 2010년 이래 그러한 서술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상호 인식의 접점으로 삼을 만하다.

한편으로 북측의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시대적 영향을 받고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게 변화해 왔다는 점은 남측의 역사교육 논의에 비하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북측의 교과서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은 현재의 남북화해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남북의 역사대화 가능성과 실질적인 역사인식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점에서 재일조선인 민족학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교과서가 북측의 서술보다는 남측의 서술에 가깝다는 점은 북측 교과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일조선인들의 교과서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한 남북역사대화, 나아가 남북재일의 역사대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대회 토론 녹취록]

[학술대회 토론 녹취록]

좌장_최덕수: 이번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의 최덕수입니다. 고창군은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또는 일반 군민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도 그 일환으로 15번째 맞는 학술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이라는 주제로 오전부터 지금까지 4분 선생님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의 의미를 한층 더 살펴보고, 더욱이 올해가 마지막 발표의 이신철 선생님의 머리말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대외정세가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해 한국근현대사 100년의 중요한 전환기에 그간의 동학농민운동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반인에게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학술대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처음 발표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으로 신영우 선생님이 발표를 해 주셨고, 두 번째 발표는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됐는지 살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과 북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관련 내용을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과서에 동학농민전쟁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간 학계의 활발한 연구 성과,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일반인에게 교육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나, 일반인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정토론자분의 토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도출되는 토론이나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도 아울러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표부터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까합니다.

토론자_이병규: 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이라는 신영우 선생님의 발표 내용입니다. 토론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종로에 세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상상을 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전봉준장군의 동상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 세워져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논문을 발표해주신 신영우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우 선생님의 발표는 한국 최초의 역사인물 동상,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동상, 한국 근대인물의 동상, 중국 근대인물의 동상, 전봉준장군 동상 제작과정,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의 의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오신 선생님께서 그동안 수집해온 관련 자료, 전봉준장군 동상 제작 과정, 동상 건립의 의의 등을 쉽게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한국사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전봉준이 기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봉준이 곧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봉준이라는 인물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많은 상징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주체, 건립시기, 건립 장소 등이 순수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징물들이 만들어지고 외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덕진공원의 전봉준장군동상은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이며, 황토현전적지의 동상 역시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징으로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여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전봉준공원의 동상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고, 충무공원의 동상은 정읍의 위인으로서만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서울 종로의 전봉준동상은 이러한 한계를 모두 극복하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전봉준장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만들어진 전봉준장군 동상이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동상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상징성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동상건립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후 건립된 전봉준장군 동상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며 관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관리방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은 전봉준장군 기념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봉준장군 기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동상건립을 위해 구성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전봉준장군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전봉준장군에 대한 연구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_최덕수: 첫 번째 발표 신영우 선생님의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계시는 이병규 선생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신영우 선생님의 경우 발표 첫머리에서 개인적으로 38년 동안의 연구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소회도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연구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념물, 동상건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시면서 지금까지 근대 인물에 대한 동상의 건립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국내외 여러 가지 기념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99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그와 같은 연구 성과가 모여서 오늘의 발표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포인트가 맞춰진 발표였습니다. 특별히 동상 기념사업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기념일의 논란에 비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특히 신영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토론의 경우 대체로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_신영우: 종로네거리에 세운 전봉준 장군 동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장소성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가장 가까운 대로변에 있는 동상이 바로 전봉준 장군 동상이지요. 앞으로 서울 중심부에 이런 역사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문화인물은 가능하겠지요. 한국 문화와 말 또는 문화의 상징이 되는 분들의 동상은 세워질 수 있겠지만 역사인물에 대한 동상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성이 가장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봉준 동상의 특징은 개인이나 기업이 후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모금으로 세운 동상이란 점이지요. 이런 방식은 한국에 전례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해서 동상을 세운 처음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전봉준 동상은 크고 높은 동상이 아니라 낮은 좌상인 점입니다. 역사인물을 좌상으로 만든 사례는 적습니다. 큰길가에 있는 동상으로 크게 만들지 않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역사인물의 동상을 설치하면 조각 전문가나 역사 전공자들이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동상이 제막식 이후 현재까지 비판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낮게 세우지 않았느냐”는 의견은 있지만 그건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까지 비판이 없는 것은 ‘잘했다’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많이 펼쳐왔지만 전봉준 동상

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 혁명 관련된 사업의 모범 전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봉준 장군 관련 새로운 연구가 나올 수 있지요. 제가 전봉준 장군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을 유족확인 과정에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전봉준 장군과 얼굴이 거의 흡사한 분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총기만 빠진 분입니다. 그분 얼굴을 보니까 전봉준 장군과 흡사한 것을 보고 앞으로 이런 후손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후손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전봉준 장군 동상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건립위원회 소유도 아닙니다.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겠지요. 당분간은 건립위원회가 관리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전봉준연구소의 연구 대상은 전봉준 개인이나 전봉준 기념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한국이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동상이죠. 또 그런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_최덕수: 신영우 선생님의 말씀처럼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은 여러 동학기념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얘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로 대로변이라는 서울 중심의 장소성, 또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모금으로 이루어진 점, 또 형태로서는 좌상, 건립이후에 다른 근대인물의 동상에 비해 전혀 비판이 없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상의 가치는 이른바 국민들에게 동학농민을 기념하고, 동학농민을 찾는 중요한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_조재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의 토론을 맡은 조재곤이라고 합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양식 선생님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제가 여기에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양식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을 30년 간 꾸준히 공부해 오시고, 많은 서적과 연구 실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써 이번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방이후부터 현대까지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고 의미 있게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의 의미

1) 역사는 시대적 조건에 규정되고 그 결과 용어와 개념규정도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는 가장 객관화되고 응축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라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김양식 선생의 해방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이는 ‘동학농민혁명’ 서술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 정리는 그러한 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과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2) 이 글은 1954년부터 시작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학제인 제7차 교육과정까지 걸친 ‘동학농민혁명’의 용어와 개념, 서술기조 전반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그간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동학란’으로 시작해서 동학혁명→동학농민혁명운동→동학운동→동학농민운동의 순으로 변천하여 현재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명칭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 내용

1) 이 연구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서술동향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대체로 유신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 시기의 국정을 제하면 검인정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박정희 정권 이전인 제1차 교육과정에서 이병도는 ‘동학란’을 ‘조선후기’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었고, 또 청일전쟁 이후의 전면적 봉기를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이 특이해 보인다.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는 검

인정 체제였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5.16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란과 구분하는 ‘동학혁명’으로 수정하는 한편 김상기 등 이 분야 전문 역사학자들이 동학혁명이 3월 기포부터 시작한 것으로 서술한 점을 특징으로 잡았다.

2) 10월 유신 이후 국정교과서로 전환된 제3차 교육과정에는 취약한 정통성 확보와 새마을 운동의 근대성 부각과도 결부되어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개념을 규정하면서 ‘3월 기포’ 내지 그와 유사한 내용구성을 통해 무장기포를 강조하는 한편 처음으로 집강소를 언급하였던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역시 국정인 전두환 정권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은 강화되었지만 ‘혁명’과 ‘농민’을 뺀 ‘동학운동’으로 규정하면서 개념과 의미가 사상된 가장 가치중립적으로 애매하게 처리하였다. 노태우 정권 이후 시작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수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부터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하는 근현대사 교과서로 다시 바뀌었다. 제7차부터 여러 교과서들에서 동학혁명 관련 내용은 심화될 수 있었지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는 교육부의 ‘한국사 집필지침’에 따라 기존 4차 교육과정에서의 내용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맹렬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여 완료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가 교학사 교과서 역사교과서 파동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붕괴로 종료되었던 것이다.

3) 그러나 발표자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혁명에 대한 서술은 시기별로 또는 교과서 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글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인 1차 봉기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무장봉기’가 언급된 교과서도 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고부농민봉기’를 동학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시기에는 연구수준이 문제일 수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3. 생각해볼 점

1) 잘 알다시피 2004년 국회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한지도 벌써 14년이 지났다. 또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접두어로 한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4년간 구성되어 유족조사와 등록을 행하였고, 이후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꾸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동학농민운동’으로 규정하고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처럼 향후 제작될 역사교과서에서는 현재까지의 가장 규정성이 높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용어와 성격에 대한 토론의 장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세삼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인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20여 년 이전에 그간 가장 일반적으로 개념화되었던 용어인 ‘동학농민혁명’에서 벗어나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한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등 접두어 차이가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것 또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 점에서 일반적인 통념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교과서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학계와는 다소 유리될 수 있겠으나 향후 기회에는 ‘혁명론’과 ‘농민전쟁론’ 등의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개념과 역사상을 새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장_최덕수: 두 번째 김양식 선생님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 내용과 과제’에 대해 조재고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토론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김양식 선생님의 연구 성과를 잘 정리를 하시고 발표문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용어 문제 중심의 교과서 문제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역시 교과서 용어에 대해서 토론자 나름의 생각을 개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발표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 교과서에 용어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짧게 발표자로써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김양식: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 점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교과서의 용어가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새 교과서 지필지침에 의하면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병규 부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동학농민운동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가겠다는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도 예상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혁명보다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작년에 세계기록문화유산 후보에 오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동학농민운동의 개념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물론 동학 쪽의 전공자와 관계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학계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정부에서도 수용을 못하는 것은 결국 한국근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지형의 문제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항 이후 한국근대의 주류는, 주도적 운동은 개화운동이지 농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 개화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화운동이 주류이고 농민운동, 동학운동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한국근대 역사상에 대한 재정립 없이는 교과서 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대접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근대란 무엇인가, 우리가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는 서구 중심적인 근대화론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아까 이신철 선생님이신가요. 아시아 전체의 근대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서구중심의 근대가 아니라 중층적 근대론을 주장을 하거나 유교적 근대론을 주장을 해서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의 근대의 길이 있는 것이고,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의, 한국은 한국의 근대의 길이 있는 것이지 왜 꼭 근대는 서구의 길로 가야하느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실제 19세기 성리학적인 지식인 사이에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그 속에서 변혁적인 민중적인 어떤 유학체계가 확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민중적인 유학 관점에서 유학의 '인의예지'를 재해석하고 '의'를 민중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면서 '의'와 '정의'의 이데올로기를 농민혁명과 접목시켜 나갑니다. 민중적인 유학론이죠. 예를 들면, 전봉준도 그런 시각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아시아적인 근대의 실질적인 사례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주목한다면 교과서 서술체계도 새롭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위상도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곤 선생님의 생각해 볼 점 두 번째는 저한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근대 역사학계에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개념, 용어,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저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_최덕수: 감사합니다. 특히 용어문제라든가, 교과서에 실리는 용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토론자_송양섭: 소개받은 송양섭 입니다. 사실 저는 농민전쟁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불러 나온 연유는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는 압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러 관계자 선생님들과 낮이 익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늦게 와서 발표하시는 것을 끝 부분만 들었

는데, 발표문에 나타나지 않는 풍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토론에서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문은 주로 북한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봉준에 대한 인식 내지 이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동학농민전쟁연구에 대한 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전봉준이라는 개인에 집중하여 천착한 연구는 본 발표문이 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역사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이념과 밀착된, 극히 현실참여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성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남한역사학과 일정하게 구분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선전사』에서는 동학이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발전에 해독을 끼치는 환상적인 종교미신적 요소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의 구국투쟁에 해독을 끼쳤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외피론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분위기가 바뀌어 동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학과 천도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령 이돈하의 <신인철학>에 대해 “우리 민족을 도덕적으로 완성시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지상천국> 건설과 그 실현방도를 사상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은 우리나라 근대철학사상의 한 조류”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한분희). 이 글이 발표된 1997년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간으로 북한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학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당시 애국주의가 강조되던 북한의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 시기 변화된 연구사의 정리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 전봉준의 반봉건 의식의 한계를 강조하는 북한의 평가는 아마도 일관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주체사상의 수령론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50~60년대 주체사상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의 그것과의 비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점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학인식과 관련하여 초기 시기구분논쟁에서 제기된 쟁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전봉준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논점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 시점의 남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는 일단 소강기에 접어들었으면서도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연구가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과 대비하여 근자의 북한의 연구경향에 새로이 제기되는 특징적인 요소는 없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전쟁과 전봉준에 대한 연구는 북한학계와도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 아까 이신철 선생님께서 사실 많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좌장_최덕수: 세 번째 토론의 경우 대체로 북한학계의 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시기별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북한학계의 연구사가 축적된 변화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과 관련된 변화인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_배항섭: 네, 감사합니다. 좀 쉬운 질문을 해달라고 비전공자를 모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모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예를 들면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이 거의 없어요. 동학관련 학위논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연구의 침체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새로운 좀 더 훌륭한 연구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 혹시 새로운 연구 경향이나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소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고려대학교 유바다 선생님이 최근 북한연구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

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학계에서도 새로운 연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새로운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의 사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연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새로운 자료 발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다른 연구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는 남한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심각하게 지체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동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신인철학’ 같은 것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 이후의 연구 성과와 관련이 있는가?. 또 이런 연구 경향이 1997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 그 무렵 북한이 처한 위기상황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체사상이란 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중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발전에 대해 마르크스의 경우는 계급투쟁을 강조합니다. 사람보다는 사회경제적인 객관적인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체의 변화, 새로운 사회질서를 가져온다는 인식의 발상이라면, 주체사상은 인간의 각성과 주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발표문에서도 북한의 농민전쟁 연구에서도 합법적인 발전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북한 학계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역사발전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은 사실상 주체사상과 관계없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발전론을 수용하고 그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나온 책이 1980년의 『조선전사』입니다. 전체 33권으로 되어있고, 북한학계의 한국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거질의 책입니다. 『조선전사』의 내용은 물론, 주체사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대표적인 책인 1958년의 『조선통사』 하권에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조선전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이유를 선진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지도와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영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1958년에 나온 책에서는 전봉준이라는 개인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요. 전봉준이 이런 한계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온 『조선전사』부터는 전봉준 얘기가 직접 나오고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실질적이고 전체적으로 역사 발전을 바라보는 사관이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 면에서는 1980이후나 이전에는 대단한 차이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의 북한학계의 연구에서 보이는 변화는 애국주의가 강조되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1990년대 이후 북한 학계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때 결론 부분에서 1990년대 이후 연구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동학의 애국, 애족 투쟁이랄까, 민족적 투쟁 등을 강조하고 계급적인 성격보다는 민족적인 성격을 더 강조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시기의 연구에 비해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당시에 북한이 처해있던 국내외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체제가 확 무너져버렸으니까요. 그런 위기의식들이 역사 서술 기조에도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1994년 김일성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의 죽음에 따른 정치 국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또 그 무렵 더욱 고조된 북 핵을 둘러싼 위기들, 당시 북한이 처해 있던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이 북한 학계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가 보이는 핵심적인 측면은 동학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계기로 지적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김일성의 유언입니다. 저는 199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학계의 인식에서 보이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일성의

유언일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우선 김일성의 경우 북한전문가인 이신철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족해방투쟁을 할 때 실제로 김일성은 정의부에서 설치하였던 화성의숙에 다녔는데 이때 천도교인이던 숙장 최동오와 숙감 강제하의 영향을 받아 동학과 천도교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는 동학의 비폭력적인 면과 범신론적인 점,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에 기초한 점, 계급적 제한성과 이론적 실천적 미숙성을 가진 탓으로 반일 민족 해방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민중들을 하나로 끌어 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지만, 그 기본 사상과 이념이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앞서 <인내천>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동학의 교리가 하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봉건적 사회제도를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존중과 평등을 주장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 김일성은 천도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이 계속 김일성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1994년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해 한 생을 바쳐 싸운 그 목적과 이상이 실현되고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 강토에서 세세년년 복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동학열사들이 바라던 그런 세상, 그런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이런 말을 죽기 직전에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역사서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면을 생각할 때, 김일성이 죽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것은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 동학에 대해서 북한 학계의 역사 서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철 선생님이 전봉준 장군의 아들이 전해산이라고 하셨는데, 전해산은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해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굉장히 유명한 의병장입니다. 그분이 전봉준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를 비

릇한 신문에 의병장 전해산이 전봉준의 아들이라는 기사가 수차례 실렸습니다. 임실 출신인 그의 본명은 全垂鏞(1879-1910)으로 海山은 그의 호이며, 한말 후기의병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직접 쓴 『전해산진중일기』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綠豆”의 아들이라고 했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봉준과 같은 성씨이고, 전봉준의 거주지였던 고부와 임실이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풍문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풍문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시기구분 논쟁과 동학농민혁명 인식과의 관련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학계의 한국사 전체 전개과정의 시기구분과 관련해서 동학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발전단계론을 깊이 신봉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역사발전을 추동해 나가는 중심적인 축은 개화파, 문명 개화론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개화파들이 부르주아 민족운동을 주도할 계층이었고, 농민들은 거기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그런 큰 시기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장_최덕수: 남북한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도 그간의 북한학계의 여러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절적 한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연구가 학계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보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마지막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_은정태: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된 은정태입니다. 저는 이신철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남북·재일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전쟁 인식 비교’ 라

는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신철 선생님께서는 북한현대사를 전공하셨고, 이른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교과서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아까 송양섭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본 경험을 갖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문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과서와 연구가 있는데, 세 번째 발표하신 글은 연구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의 차이를 북한에서 어떻게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변화를 다뤘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서술이 남북한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양자가 서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까 배항섭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소 중복되는 게 있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을 염두 해 두고 토론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북한 역사인식의 추이

해방직후 전석담, 이청원 등이 주도하던 탈식민기에는 동학 외피론에 바탕을 둔 접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58년 종파투쟁 이후 특히 1970년대 주체사관이 정립되면서 동학외피론을 보다 강조하였고, 동학을 농민들의 정신을 쯤먹는 존재로 그리고 반침략반봉건의 농민투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부르조아혁명기로 전제하고 개화파를 지도부로 농민운동을 추동세력이라 하면서 개화파 중심의 역사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에 대한 긍정 평가 속에서도 결국 적절한 지도부의 부재가 실패를 가져왔음을 지적하여 곧 대중-지도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김일성의 사망,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세를 반영하여 '우리식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강성대국' 담론이 팽배한 가운데, 전통사상으로서의 동학에 대한 긍정 평가, 동학농민혁명을 전민족적 애국투쟁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당시

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나. 질문

첫째, 1990년대 이후의 변화상을 많은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자료 대부분은 2001년판 『조선력사』입니다. 그렇다면 북학역사학계의 동향에 대한 이해는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전후 김정은정권의 등장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의 해소 등을 반영할 여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구할 교과서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보인 북한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현재에도 쭉 이어져오고 있다고 이해하는 태도 등은 일단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점이 교과서 서술 분석에서 적절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재일 조선학교의 교과서를 언급한 것은 본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일교과서 집필을 북한에서 ‘수용’한다고 할 때 그 수용의 의미가 적절히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일’이기 때문이라는 독립성이 해당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적절히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습지도안처럼 보완자료 등으로 해당 교과서 서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재일교과서에서 ‘재일’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남북한 인식 등, 근현대사의 인식과 서술은 향후 북일 간의 교섭과정에서 분명히 부각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의 변화가능성과 여지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재 발표문의 표에는 남한, 북한, 재일 3곳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세분화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논점에 집중해서 풀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서술체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동학에 대한 평가, 농민군지도자에 대한 평가 등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핵심적인 쟁점 등에 집중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많은 공부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_최덕수: 이신철 선생님의 발표는 남북한 교과서 나아가서 재일 조선학교의 교과서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자체가 너무 초반자료로써 채울 게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재일 조선학교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에 대한 보완설명, 그리고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북일수교를 앞둔 이 점에서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_이신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문제인데요. 2014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아직 그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쪽에서 그 자료를 구해서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14년 교과서에는 제 짐작으로는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1995년 교과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1995년 교과서와 2002년 교과서는 아주 다릅니다.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1894년 농민전쟁에서 갑오농민전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 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화파가 실패하고 농민전쟁이 그것을 한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인식으로 바뀐 거죠. 반제투쟁으로써 자리매김 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농민전쟁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80년대의 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역사가 통사로써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미세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배항섭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치적 정세를 반영해서 바뀐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이 끝난 다음에 북에서 뭘 하나면, 이때 까지 통사 책으로 썼던 것을 주제사, 문화사, 분류사로 전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4년 전후로 해서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점과 핵심은 그대로 두고,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혈통을 강조하면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분류를 주제사, 문화사 이렇게 주제별로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새로 됩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의 투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로 다시 쓰고 있고, 교육제도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를 몽땅 통틀어서 전체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자료를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우리가 입수하는 통로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완전히 막혀있죠 지금. 조일관계가 완전히 막히면서 책 구할 데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구할 수 있었는데 중국도 조중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책이 중단됐고 서점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나온 책들을 이제는 직접 가서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가서 구해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책들도 사실 학우서방 한곳에서 다 나와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왜냐면 국가보안법이 어디까지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요. 개인적으로 연구자가 하기도 힘들고, 정부와 연결이 되고, 군이나 이런 단위에서 시도하면서 교섭을 하고 그래도 안줄 겁니다. 안주면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제한적으로 몇 권밖에 못 구해서 분석이 좀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동학을 매개로 북과의 대화를 요청한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기를 하고 북쪽에 요청을 하면 북이 호응해 나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배항섭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일성이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언으로 남겨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토론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이상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어디서든 할 수가 있고, 자료들도 입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학교 교과서 부분입니다. 조선학교 교과서가 2000년대에 와서 완전히 바뀝니다. 1990년대까지는 집필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들어갑니다. 북으로 들어가서 직접 쓰고 북의 지도를 받아서 교과서를 거기서 만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북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써 가지고 북에 보내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합니다.

이것은 2000년 6.15정상회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엄청 진보적입니다. 남한의 교과서보다 훌륭한 서술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북에 관해서도 쓰고, 남에 관해서도 쓰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일조선인의 교과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며, 거기에서 역사 대화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일조선인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면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며칠 전에는 고대 학생들과 학생 교류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술교류를 요청하면 거의 100%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조일수교 과정에서 염두 해둘 부분들, 이게 동학 문제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대일과거사 문제를 교섭할 때 우리가 힘이 없었던 게 너무 비통한데요. 왜냐면 우리는 피해자 숫자도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를 일본군들이 다 태워버렸고, 있는 것은 안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그런 것을 증언할 분들이 계실 때 돈 버느라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증언 하나 못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

운동을 하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또는 동학농민혁명을 하다가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훗카이도 대학에 가면 동학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총도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정부차원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역으로 묻습니다. 강제동원피해자를 몇 명이라고 교과서에 쓰면 되겠냐고 정부쪽에 질문을 하면 말 못합니다. 왜냐면 정부가 20만 명 그러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수십만 명 뭐 이런 정도로 합니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얼마나 돌아가셨느냐 물어도 말 못하죠. 그런데 심지어 북에서는 아까 23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들을 좁히지 않으면,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일본한테 들이밀지 않으면 일본은 ‘야, 너네끼리도 통일이 안 되고, 자료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교과서는 그런 거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본 교과서도 못 바꾸고 실질적인 배상 문제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학부터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런 피해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노력, 정부차원에서의 기구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배항섭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편수용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무슨 용어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가 이번 교과서 교육과정 만들 때 약간 옆에서 주어들은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 문제를 뒤로 미뤄놨어요. 왜냐면 다 끝나고 ‘편수용어를 전체적으로 바꾸자, 한번 논의를 하자, 학계의 의견을 모으자’ 까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새로 개편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 발전을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라고 썼잖아요, 옛날에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된다고 전 정부에서 난리를 쳐서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런데 또 반발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바꿨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서, 그것을 의논을 안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논의하던 주체들이 다 사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동학관련 단체라

든지 연구자들이 정부한테 ‘편수용어 다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좌장_최덕수: 감사합니다. 남북한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한의 학술교류의 필요성,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중심에 지금까지, 이번 학술대회도 지원해주신 고창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에 대한 발표자들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1_진윤식: 네, 안녕하세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잠깐 인사말씀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어떨겠습니까.

고창군수_유기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시는 말씀’에 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중1_진윤식: 네, 감사합니다. 신영우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0주년 행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4년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실 동학관련 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일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동안 동학사가 부분적으로 쓰여진 것은 있지만 새로 연구

되고, 자료가 새로 발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는 됐지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큰 틀로 마련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신영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를 말하자면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전봉준연구소로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발표를 하셔서 동학사가 새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어문제라든가 교과서에 실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봉준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좌장_최덕수: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같이 더 받고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청중2_전세환: 저는 천안 전씨 중앙종친회장 전세환 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윤식 회장님의 말씀대로 동학농민혁명과 전쟁은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동학농민기념재단이나 문체부에서 학술용역을 1년 정도 하면, 2년 정도 안에 공청회까지 끝나면 기본적인 자료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각자 지역별로 되어있고, 각 시군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부에서 집강소까지는 동학혁명으로 구상하면 되겠지만 삼례에서 우금치까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니까 동학농민전쟁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통합되어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그 용어를, 전봉준 장군 혼자 하시는 게 동학혁명이 아니거든요. 동학혁명을 하신 것은 백성들이 같이 하신 거니까 전국화로 통합을 하려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 자료를 기본으로 누구든지 동학혁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신영우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에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에서도 2015년부터 전봉준 동상을 한옥마을에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중단을 시켰어요. 문중이나 전봉준 장군의 지역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상만 세웠다고 신문 기사를 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지만은 그 부분은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게 되면 서울에 세운 동상 형태와 전주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동상과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의미도 좀 다르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게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뒤를 보면 전봉준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쏘 자가. 그 전자는 사람 인에 임금 왕자를 써야 되는 게 일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초도 그렇고 사발통문도 그렇고요. 지금 써져있는 한자는 우리 역사에는 없다고 자료를 분명히 드려도 그 한자를 쓰시는데 그것은 일본이 만든 활자입니다. 고딕체, 명조체는 컴퓨터 서체로 저작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글에서 집어넣은 서체예요. 중국 일본은 전혀 그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의회를 해서 동상건립위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신영우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장_최덕수: 맨 뒷줄에 계시 분 질문 해주세요.

청중3_김용운: 저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용운입니다. 신영우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세계의 동상, 중국 동상, 일본 동상, 우리 한국의 동상을 100여 개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와 뜻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상은 어떻게 보면 위인들의 위엄성, 후세에게 지향하고자하는 상징성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그 모형 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스크린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종로에 세워진 전봉준 동상은 TV에서 몇 번 봤는데 좌상이다 보

니까 작고, 종로 네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서있으면 볼품이 있는데, 앉아있는 자세에, 또 일본에 포로로 잡혀서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상당히 이게 아닌데 했습니다.

우리 신영우 교수님께 의미와 뜻을 듣고는 연유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약간 좌상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약하다며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석하지만 의미와 뜻을 다 담은 것이라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대로변에 있지 않고, 종로 인도 골목길, 건물 앞에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영우 교수님 등 관계되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세워준 것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출생지 고창에는 아직 동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읍에는 아까 스크린에서 봤듯이 세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지인 우리 고창에는 아직 동상이 없습니다. 지금 종로네거리에 있는 동상을 그대로 해서 고창군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 하나와,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와 상징을 담은 다른 동상을 다시 한 번 우리 고창 관내에도 세울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출생지니까 하나정도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있어야만 그래도 어디 가서 말을 당당하게 하고, 고창군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신영우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장_최덕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분만 더 짧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중4_김용선: 저는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용선 입니다. 오늘 학술발표회를 잘 들었습니다. 마침 천안 전씨 종친회에서도 오셨는데요.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파위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언제까지 동학농민혁명하면 상징적으로 전봉준 장군

만 떠올려야 합니다. 개인이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이 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다양화하면 좋겠어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손화중 장군님, 김개남 장군님.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 없이 사라진 무명용사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제가 연구결과가 소홀하다 하시는데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다양하면 좀 더 폭이 넓어져서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_최덕수: 감사합니다. 모두 네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영우 선생님께 두 분정도 질의를 하였고, 전체적으로 오늘의 연구가 그간의 학술연구가 집약이 돼서 앞으로 남북화해라든가 한반도의 전체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어낼 수 있겠는가,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집중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 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한 10분 이내로 전체적인 토론을 끝내고자 하니까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신 신영우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용어 통일이라든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항섭 선생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_신영우: 동상건립위원회를 연구소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연구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연구자 수가 적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 후속세대가 계속 배출돼서 확대된다면 걱정이 없겠지요.

둘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하는 게 좋겠는가. 올해 전봉준연구소의 총서 1권을 간행했습니다. 이것은 간행비가 마련되어서 낸 것이 아니라 출판사와 협력해서 발간했지요.

이런 연구총서라든가 연구저서를 간행하는 것이 있고, 또 학술발표회나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동상건립을 국민모금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상건립에는 특정한 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요. 이제는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상건립에 참여했던 실무자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사업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창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다면 무장에서 잡혀서 처형된 대접주가 여러 명입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경상도 지역을 조사했을 때처럼 살던 마을에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후손을 만나서 족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개인 역량과 지식 정도, 재산 소유 정도는 물론 어떻게 활동했는지, 집안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조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창에서 조사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작업은 늦었으면 늦은 데로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롯데호텔 앞에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푸시킨 동상은 러시아에서 제공해서 같은 동상을 설치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특정 인물 동상을 여러 지역에 세우는 것이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세우기도 합니다. 같은 동상을 세우는 것은 동상 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진 등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세우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봉준 장군 사진은 하나가 있지요. 이 사진을 토대로 작가가 재창조한 작품이 종로 네거리에 세운 동상입니다. 이 틀 그대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동상을 만들어도 되지만 작가에 따라 다르게 만들겠지요. 역사인물의 동상은 역사 전공자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작가에게만 맡기면 문제가 나오지요. 이순신 장군 동상 제작에는 역사전공자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칼을 왼손에 잡느냐, 오른손에 잡느냐 하는 기초적 문제부터 어떤 갑옷을 표현하느냐 등 여러 문제가 있지요. 동상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안 전씨 문중에서 제기한 문제는 제가 들었습니다. 동상 설명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문전공사 의견을 들었지요. 한국에서 들입자 전자를 쓰게 된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면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_배향섭: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용어관련 된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도 한번 동학농민혁명 용어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역사비평』이라는 잡지에 정리를 해서 제가 실은 적이 있습니다. 조재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쯤 다시 한 번 살필 때도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교과서 서술을 위해서라면 통일된 용어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다고 봅니다. 또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헛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인식, 역사적 경험을 특정한 시각에 가두어 박제화 하고 죽여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연배가 있는 분들인데 나이 드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역사에 대한 감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나 조선시대 때 증조부, 고조부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습니까.

역사용어가 고정되면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나 폭넓은 사고를 방해하는, 오히려 특정한 틀 안에 가둬버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를 위해서라면, 또 일반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용어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장_최덕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술발표는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여전히 고창군에 관한 또는 지역적으로든지 또는 연구의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다만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자의 숫자는 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구가 그동안의 한국뿐 만아니라 앞으로의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연구 또는 일본 등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전쟁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서 북한에서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은 의외라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는 중국 남경대학에 잠깐 있었는데 중국 근대사의 경우,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주제가 딱 3가지입니다. 태평천국과 그 다음에 신해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보통 태평천국과 비교하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 굉장히 근대사에서 태평천국이라든가 신해혁명, 거의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연구는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교과서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발표를 마치면서 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표를 오늘 마치지만 그간 이 발표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해주신 고창군,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 고창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학술대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기념 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발행일 : 2018년 11월

발 행 :

고창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